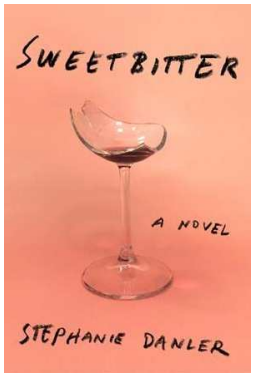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SWEETBITTER
가제 : 달콤씁쓸한 인생
저자 : Stephanie Danler
출판사: Knopf
발행일: 2016년 5월 24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소설/ 성장소설, 현대소설

*** 미국 케이블 채널 '스타즈*(Starz)' TV* 드라마 제작 확정**
*** 수십 만 달러 규모로 출판 계약 체결, 초판 *10*만 부 인쇄, 영국, 중국 판권 계약 체결**
*** 「옵저버」 선정 *2016*년 올해의 책, 「뉴욕타임스」, 「*USA* 투데이」 베스트셀러**

딱히 무엇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은지 명확하지는 않아도, 특별히 큰 돈을 벌거나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도 없어도 쭉 살던 대로 계속 살고 싶은 건 아니다. 중서부 지역 어느 작고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나고 자란 테스는 그럼 심정으로 뉴욕에 입성했다. 태어나자마자 도망가버린 엄마, 늘 똑같이 이루어지는 일상에서 벗어나 무작정 차를 끌고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도시라 불리는 뉴욕으로 온 것은 2006년 6월의 어느 날, 테스가 스물두 살 때였다. 소설은 호기심과 열정은 넘치지만 야망이나 구체적인 꿈은 없는 이 젊은이가 뉴욕에서 보낸 1년간의 삶을 바로 곁에서 따라간다. 룸메이트가 추천한 유니온 광장의 역사 깊은 고급 레스토랑에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 까다로운 손님들과 그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요리사들, 생각보다 수백 배는 더 고된 웨이트리스 생활에 기겁하지만 놀랄 틈도 없이 바쁘게 흘러가는 시간들, 그 속에서 서서히 형성되는 복잡미묘한 관계들과 사랑, 배신의 이야기가 꾸밈 없고 둘러댈 줄 모르는 테스의 눈으로 있는 그대로 전해진다. 출간 이후 베스트셀러에 등극하며 큰 화제를 낳은 이 데뷔 소설은 80년대 젊은이들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얻은 베스트셀러 『Bright Lights Big City』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에 미국 드라마로도 제작된 『키친 컨피덴셜(Kitchen Confidential)』이 결합된 듯한 성장 소설이자 화려한 뉴욕 시내 중심가 레스토랑의 와일드하고 매혹적인 세계를 흥미롭게 조명한다.

뉴욕에 들어오면서 다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 테스는 철저한 위계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호화 레스토랑에서 두근대는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꿈꾸지만, 저녁마다 우아한 홀 뒤에서 벌어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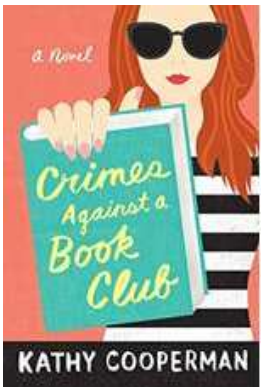
일들은 한마디로 혼돈 그 자체였다. 성질 나쁜 셰프들의 고함소리에 시달리고 정신 없이 움직이다 계단에서 구르기도 하고 서로 배척하면서도 똘똘 뭉친 다른 동료들 틈에 낄 자리가 없어 매일 밤 몸도 마음도 녹초가 되어 쓰러지는 날만 연속되길 수일째, 테스에게 이 레스토랑에서 가장 오래 일했다는 선배 웨이트리스 시몬이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어릴 적 자신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이야기하며, 테스를 자신의 제자로 여기기 시작한 시몬은 어설프고 순진하기만 한 테스에게 꼭 필요한 기술을 하나하나 일러준다. 테스는 어딘가 수수께기 같은 구석이 있는 이 고마운 선배로부터 일뿐만 아니라 와인의 맛과 깊이, 고급 식재료를 알아보고 맛을 구분하는 방법을 익히며 서서히 새로운 미각의 세계에 눈을 뜬다. 일이 안정되면서 마침내 테스는 동료들에게도 구성원의 하나로 인정 받게 되지만 곧 생각지 못한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조심하라고 경고한 사람, 바텐더 제이크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테스에게 모진 말을 가차 없이 날려 눈물 펑펑 쏟게 만들기도 하고, 처음 봤을 때부터 우울한 분위기가 물씬 느껴졌던 데다 과거 코카인 중독자로도 동료들 사이에서 유명한 제이크는 이상하게 사람의 마음을 잡아 끄는 매력이 있었다. 테스는 자신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멘토인 시몬과 제이크 사이에 사람들이 모르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도 제이크를 향한 호감을 접지 못한다. 제이크, 그리고 시몬과의 만남이 평생 절대 잊을 수 없을 아주 쓰라리고 값진 교훈이 되리라는 걸 그 때 테스는 깨닫지 못했다.

다채로운 음식과 와인, 화려한 조명과 미소를 잃지 않는 웨이터들로 가려진 맨해튼의 레스토랑에서 일어나는 뜻밖의 사건들을 유려한 문체에 담은 이 소설은 세상물정 모르던 새파란 젊은이가 전에 몰랐던 음식들과 세상의 '맛'을 알아가고 그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느낌을 제대로 깨우쳐 가는 과정을 그린다.

<저자 소개>

스테파니 댄러(Stephanie Danler)는 케니언 컬리지에서 공부하고 더 뉴 스쿨(The New School)에서 문예창작 석사를 취득했다. 위 데뷔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될 TV 드라마 제작에 직접 참여하고 각본을 쓸 예정이다.



제목 : CRIMES AGAINST A BOOK CLUB
가제 : 북 클럽 사기단
저자 : Kathy Cooperman
출판사: Lake Union Publishing
발행일: 2017년 5월 1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소설/ 여성 소설

*** 올해 *5*월 출간 이후 전자 책, 실물 도서 포함 *15*만권 이상 판매**
*** 아마존 킨들 선정 *4*월의 '퍼스트 셀렉션*(First Selection)*', 「리얼 심플」 선정 '*5*월의 책**
*** "쉽게 잊혀지지 않을 두 대담한 주인공이 등장한다. 경쾌하고 마음을 잡아 끄는 데뷔 소설" –「퍼블리셔스 위클리」**

길거리나 백화점, 슈퍼마켓에서 나이가 그리 젊지 않은데 유독 여러 사람의 눈길을 사로 잡을 만큼 늘씬한 몸매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심하게 꾸미고 가꾼 여성과 마주칠 때가 있다. 몸에 꽉 끼는 요가팬츠나 실루엣이 다 드러나는 원피스, 탱탱한 피부, 잘 정돈된 헤어스타일에 손톱까지 깔끔하게 정리된 그런 여성들을 비슷한 또래의 아주 평범한 주부가 보면 심란하고 머릿속이 복잡해지게 마련이다. 자신의 삶이 팍팍하고 쪼들려 스트레스가 심할 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한탄하고 딴 세상을 사는 듯한 그런 여자들이 괜히 얄밉게 느껴진다. 그런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위화감을 아주 제대로 시원하게 뒤집어 엎기로 결심한 두 여성이 있다.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당장 거금이 필요해진 두 친구 애니와 새라는 샌디에이고에서도 부유층들이 모여 사는 라졸라에서 이 팔자 편한 사모님들이 누리는 '부당한' 풍요로움을 돈이 절실한 자신들의 오아시스로 삼는다. 그러나 큰 악의 없이, 부의 재분배라는 아주 그럴싸한 동기로 시작된 이 장난 같은 시도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두 친구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애니는 하버드에서 화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왔다.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세 아이들을 키우느라 개인적인 시간은 꿈꿀 수도 없었지만 그럭저럭 만족하며 살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된다. 세 아이 중 한 명이 자폐증 진단을 받은 것이다. 아이에게 어쩌면 평생 따라다닐 장애가 생겼다는 사실에 놀란 것도 잠시, 애니는 더 기겁할 만한 일과 마주한다. 아이가 제대로 된 자폐 치료를 받으려면 1년에 무려 84,000달러나 되는 돈이 든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 형편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런데 아주 우연한 기회로 애니는 이 답답한 상황을 타개할 묘책을 떠올린다.

애니의 친구 새라 역시 비슷한 시기에 그에 못지 않은 곤란한 상황에 놓인다. 잘 나가는 변호사로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화려하게 살아온 새라지만 사실 아무리 원해도 가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다. 사랑하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얼른 아이를 낳고 싶었지만, 늘 정신 없이 바쁘고 스트레스도 많은 변호사 업무의 특성상 불임 치료를 받아도 도통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결

국 일까지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시도하려던 새라는 이미 수입이 끊긴 상황에서 엄청난 치료비를 계속 대기가 버겁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돈을 벌자니 임신이 어려워지고, 일을 그만두니 치료비가 부족해 난감해진 새라에게 애니는 함께 큰 돈을 비교적 쉽게 구할 방법을 제안한다. 급전이 필요한 두 똑똑한 친구의 표적이 된 대상은 바로 라졸라 북클럽의 사모님들이었다.

북클럽 리더 격인 다운과 우연히 알게 되어 이 우아하고 세련된 모임에 참석하게 된 애니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이루어진 대여섯 명의 회원들에게 한 가지 아주 확고한 관심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다. 바로 시간을 되돌리는 방법, '다시 젊어지는' 방법을 찾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투자한다는 것이다. 안티에이징 제품에 수천 달러를 단번에 내밀고 온갖 시술이며 피부관리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이들의 생활을 들여다본 애니는 자신의 화학적인 지식을 동원하여 사모님들의 마음을 홀릴 '젊음의 크림'을 개발해낸다. 그리고 친구지만 빼어난 몸매와 미모 덕에 10년은 젊어 보이는 새라를 전면에 내세워 이 크림을 라졸라 북클럽 회원들에게 '특별가 단돈 2,000달러'에 팔기로 한다. 시중에 판매되는 크림에 비밀 원료가 배합된 애니의 개발품은 출중한 미모만큼이나 뛰어난 언변으로 새라가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든 덕에 좋은 반응을 얻더니 급기야 써본 사람들의 입 소문을 타고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한다. 그런데 계획한대로 돈 방석에 앉게 된 두 친구 그로부터 2년 뒤, 재판정에 고개 숙인 사기범으로 판사 앞에 선다. 대체 애니가 이 신비한 크림에 집어 넣은 비밀 원료는 무엇이었을까? 어쩌다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던 이 성분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을까?

애니가 과감히 손댄 불법 성분의 실체와 더불어, 티끌 하나 없는 피부처럼 그저 완벽하게 행복하리라 생각했던 라졸라 북 클럽의 우아한 구성원들의 실제 삶과 겉으로 절대 드러나지 않았던 이들의 깊은 절망, 슬픔, 좌절감이 뜻밖의 반전으로 드러난다. 탄탄한 구조와 빠른 전개, 풍성한 인물들이 돋보이는 소설로 우정과 결혼, 삶의 진정한 행복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유쾌하고 따뜻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캐시 쿠퍼먼(Kathy Cooperman)은 코미디언으로 활동하다가 예일 대학교 법대에 들어갔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글을 쓰고 있다.

제목 : THE DEPENDENTS

가제 : 부양가족

저자 : Katharine Dion

출판사: Little Brown

발행일: 2018년 가을

분량 : -

장르 : 소설/ 가족 소설

***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판권 계약 체결**

*** 월리스 스테그너*(Wallace Stegner)*의 『*CROSSING TO SAFETY*』와 같이 인물에 대한 심층적 탐구가 돋보이는 데뷔 소설**

아주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과 어떤 이유에서 멀어진 뒤, 문득 그 사람과의 관계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다는 사실을 깨닫는 경우가 있다.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성향이 큰 동물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이런 순간에 우리는 뒤늦게 놀라고, 큰 충격에 휩싸인다. 내가 기억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이 기억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를 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중인격자이거나 사람마다 다른 얼굴로 대하는 이상한 사람도 아닐 때, '대체 나는 무엇에 홀려 그 사람을 그렇게 보았을까' 새삼 되짚어보게 된다. 이 소설에서 아내 메이다가 마흔아홉 너무 이른 나이에 먼저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남은 남편 유진은 깊은 상실감과 슬픔을 이겨내려 애쓰는 과정에서 바로 그런 예기치 않은 놀라움을 경험한다.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아내 메이다는 딸아이 데리의 기억 속에, 그리고 부부가 수십 년 동안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온 에드와 게일 부부의 기억 속에 참 다른 존재로 남아 있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한 여름, 곧 있을 아내의 장례식을 준비하며 추억을 곱씹는 유진과 아내와의 그 단단한 기억에 크고 작은 파문을 일으키는 데리의 기억, 이야기들을 가만히 쫓아가면서 소설은 우리가 스스로를 얼마나 철저히 속일 수 있는지 보여준다.

바로 1년 전 메이다와 말다툼을 벌였던 해변가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에드는 찬란한 태양 아래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자신을 덮친 믿기 힘든 불행을 다시 뼈저리게 느낀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모래성을 쌓는 아이를 도와 함께 모래를 쌓는 남자들, 곁에서 흐뭇하게 미소 짓는 엄마들과 곁에 함께하는 귀여운 애완동물들, 신나는 음악 소리에 몸을 흔들며 연신 깔깔 웃어대는 젊은이들이 지금 표출하는 저 터질 듯한 행복이 모두 위선이 아닌 진실이라면, 세상은 누군가의 행복을 덜어다가 다른 사람에게 얹어주는 것 같다는 억울한 심정도 느낀다. 사실 유진이 괜히 이런 우울한 생각에 잠긴 건, 불과 1년 전에 아무것도 아닌 일로 메이다와 이곳에서 싸웠기 때문이다.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준다며 홍보물을 나눠주는 사람들을 에드는 단번에 거절했지만 메이다는 공짜로 한 번 받아보자며 고집을 부렸었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다며 아내의 권유를 뿌리쳐버린 에드는 나중에 혼자 해변에 돌아와 아내 말대로 검진을 받았었다. 그의 예상대로 이 임시진료소의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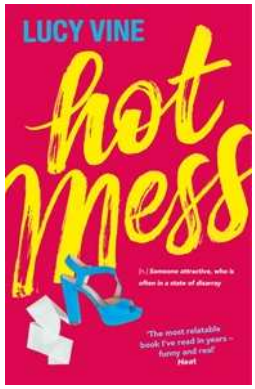
는 추가 비용을 내고 심전도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했고 순순히 그 말대로 했더니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는 결과를 손에 쥐어주었다. 에드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메이다가 숨을 거두기 전까지 미처 이야기하지 못했다. 아직 하지 못한 말, 함께 하지 못한 일들이 셀 수 없이 많다는 생각에 그는 또 다시 슬픔에 젖어 들었다.

엄마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서둘러 날아온 유진의 딸 데리는 사사건건 아버지와 부딪힌다.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은 다 큰 딸과 늙은 아버지가 썩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흔하지만, 이 부녀의 관계는 다소 애매한 구석이 있었다. 다행히 데리의 어린 딸 애니가 둘이 싸우려 할 때마다 절묘하게 중재를 해온 덕분에 지난 며칠 간 겨우 표면적으로나마 평온하게 장례 준비를 이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에드, 게일 부부와 함께 매년 여름마다 찾아오던 해변에 딸과 손녀딸을 데리고 온 유진은 위태로웠던 감정이 폭발하려는 징후를 수시로 느낀다. 모두 한 자리에서 이제 곁에 없는 메이다를 추억할 때 툭 튀어 나오는 아주 낯선 기억들, 혹은 유진은 아예 기억조차 못하는 자신의 딸 데리와 에드, 게일 부부의 소중한 추억은 유진의 신경을 거슬리게 만들고 그렇지 않아도 이 친구 부부에게 느낀 이유 없는 짜증이 점점 고조된다. 메이다가 죽은 뒤 수시로 찾아와 유진 대신 온갖 허드렛일을 도맡아 처리하고, 냉장고에 음식을 채워주며 뒷바라지해온 이들 부부에게 유진은 고마운 마음과 함께 왠지 성가신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자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는 이 친구들이나, 자꾸 원망하고 비난할 거리만 찾아내는 것 같은 데리나 다 유진에게는 사랑하지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존재들로 느껴졌다.

소설은 슬픔에 잠긴 유진의 눈을 따라가면서 큰 슬픔에 빠진 이 남자의 두 눈을 가린 사랑과 헌신, 고통스러울 만큼 비통한 심정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적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유진과 메이다의 결혼 과정과 그 동안 부부가 보내온 삶, 자식들과의 관계, 절친한 친구 부부와의 관계가 하나 둘 드러나며 흥미를 자아낸다. 아주 섬세하고 정확하게 묘사된 인물들의 감정이 돋보이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캐서린 디온(Katharine Dion)은 예일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아이오와 작가 워크숍에서 소설로 예술석사를 취득했다. 2010년에는 단편소설 “Four Graves”로 「내러티브 매거진」 작품상 ‘30세 미만 작가(30 Below Contest)’ 부분 결승 후보에 올랐다.



제목 : HOT MESS
가제 : 핫하기만 한 그녀
저자 : Lucy Vine
출판사: Orion
발행일: 2017년 7월 13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소설/

*** 네덜란드, 독일, 폴란드, 프랑스, 덴마크, 세르비아 판권 계약 체결**
*** "작가 특유의 간결하면서도 날카로운 글이 싱글로 살아가는 밀레니엄 세대가 일상적으로 견디는 고역들과 만나 빛을 발하는 소설" –「그라지아」**
*** "그 동안 읽은 책 중에 가장 웃기고 따뜻한 책. 사랑스럽고 호감 가는 여주인공 때문에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웃고 울었다." – 『*How to Be a Grown- Up*』의 저자 데이지 뷰캐넌**

겉보기에 아주 매력적이지만 인생이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타입, 보는 순간 호감이 들 만큼 눈길을 끌지만 속은 불안정한 일명 '핫한 골치덩어리' 엘리 나이트는 여동생, 일찍 결혼한 친구부터 직장 동료들에게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들들 볶이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 '만나는 남자가 없어서'이다. 이제 스물아홉, 서른을 코 앞에 둔 엘리 역시 남자친구 없이 지내는 생활이 적적한 건 사실이지만 주변 사람들의 등쌀은 정말 못 견딜 정도로 부담스럽다. 과연 엘리는 일거수일투족을 매의 눈으로 감시하며 데이트를 하나 안 하나 확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부담감과 제대로 된 남자, '운명 같은 사람'을 꿈꾸는 자신의 다소 허무맹랑한 소망을 이겨내고 괜찮은 상대를 만날 수 있을까? 엘리와 하나같이 개성 만점인 인물들의 배꼽 빠지는 일상과 우정, 사랑이 유쾌하게 시작된다.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는 엘리는 사실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정신 차리고 보니 인생이 전혀 바라지 않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월급이 풍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일이 재미 있지도 않은 회사에 늘 그만 둘 마음의 채비만 한 채 꾸역꾸역 출근을 하고, 오로지 월세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얻은 집은 시커먼 곰팡이가 곳곳에서 반긴다. 하지만 이런 열악한 생활 환경은 허구한날 "괜찮니?"라고 물어대는 주변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특히 가장 친한 친구인 소피는 육아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면서도 얼른 남자 만나서 결혼하라는 잔소리를 하루도 거르지 않는다. 여동생도 마찬가지여서, 결국 온 세상 연인들이 거리에서 온갖 바보 같은 애정 행각을 벌여도 모두 용서된다는 발렌타인 데이에 엘리는 동생이 억지로 잡아준 소개팅을 하러 낯선 바에 들어선다. 어쩌면 그것에 응한 것부터가 엉망진창 꼬인 삶에 비극을 더하는 시초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여동생이 남편 세무 신고를 도와준 변호사를 눈 여겨 봐뒀다가 그 사람 페이스북을 찾아내고 "우리 언니를 소개시켜주겠다"는 메시지까지 보내 겨우 성사시킨 이 만남은 엘리와 그 세무 변호사

에 어색하고 형식적으로 오간 문자 대화를 거쳐 발렌타인 데이의 저녁 약속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30분이나 지난 뒤에도 남자는 나타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가만히 앉아 있기도 힘든 바 스툴에 한쪽 다리를 꼰 가장 자신 있는 자세로, 얼굴에서 좀 더 매력적이라 생각하는 우측이 입구에 들어서는 모든 사람의 눈에 띄도록 힘겹게 앉아 있던 엘리는 서서히 인내심이 고갈되어 가는 것을 느꼈다. 하물며 사무실에 50세를 훌쩍 넘긴 노처녀 선배마저 "너 괜찮니"라는 문자를 보낼 정도로 남자친구 없는 신세를 불쌍하게 여기는데, 소개팅에서 바람을 맞다니!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엘리의 이 난감한 처지를 눈치챈 여자 바텐더는 자신도 어제 남자친구와 어이없게 헤어졌다며 술잔을 건네고, 속상한 마음에 그녀와 부어라 마셔라 한껏 취기가 오른 엘리는 자신을 바람 맞힌 남자에게 비웃음이 가득한 신랄한 음성 메시지까지 남긴다. 그로부터 몇 시간이나 지나서야, 엘리는 약속이 발렌타인 데이가 아닌 '발렌타인 데이 그 다음 날'이었음을 깨닫지만 이미 녹음되어버린 음성은 지울 도리가 없고, 그대로 남자의 귀에 들어가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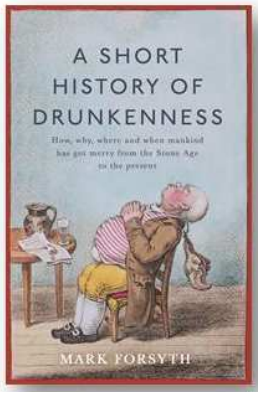
이렇게 수치스럽게 사느니 그냥 혼자 사는 쪽이 낫다고 결론 지은 엘리는 피곤한 인간관계를 싹 끊고 마음껏 싱글 생활을 즐기기 시작한다. 휴일에는 정리 안 된 침대에 뒹굴며 피자를 우걱우걱 먹어대며 텔레비전 영화나 실컷 보고, 밤마다 얼큰하게 술에 취하는 생활이 이어지자 그렇지 않아도 가족들이며 친구들은 엘리가 아주 인생 망치려고 작정한 것처럼 반응하며 절망한다.

세무 변호사 외에도 자의로든 타의로든 아주 끔찍한 결말로 이어진 데이트를 여러 번 경험한 엘리는 겉보기엔 당당하고 자기 주장도 센 여자 같지만 사실 1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엄마 생각에 힘들어하고 있었다. 엘리 스스로도 잘 인지하지 못한 이 깊은 슬픔은 알게 모르게 엘리가 주변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 영향을 준다. 허점 많고 어설프지만 사랑스러운 여주인공 엘리와 더불어 은퇴하고 아내가 떠난 집에서 소설을 쓰기로 결심한 엘리의 아버지(첫 작품의 제목은 누가 봐도 '그레이의 50가지 초상'을 따라 쓴 느낌이 역력한 '토니의 75가지 색채'), 가끔 엘리보다 훨씬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며 이모에게 따끔하게 충고하는 여섯 살짜리 영리한 조카 밀리, 열다섯 살 때부터 줄곧 한 남자와 만나느라 차라리 엘리처럼 혼자 지내는 것이 소원이라고 노래를 하는 직장 동료 매디까지, 매력적인 인물들이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재미 있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루시 바인(Lucy Vine)은 런던에서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며 「그라지아」, 「히트」, 「코스모폴리탄」, 「스타일리스트」, 「마리끌레르」 등에 글을 기고해 왔다.

NON- FICTION



제목 : A SHORT HISTORY OF DRUNKENNESS
가제 : 고주망태의 역사
저자 : Mark Forsyth
출판사: Viking
발행일: 2017년 11월 2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역사(문화)

*** 베스트셀러 저자가 정리한 술 마시는 문화, 술 취한 사람들에 관한 흥미진진한 역사**
*** 원시시대부터 금주법 시대, 현대 회식 문화에 이르기까지 술과 인류의 끈끈한 관계 총망라**

술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술에 취한 사람들이 있다. 지구상 거의 모든 문화권에 적용되는 공통점이다. 그러나 술과 만취한 사람들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인류 역사를 통틀어 늘 존재했지만 그 모습과 특성, 취하는 이유 혹은 결과는 다양하다. 기쁜 일을 축하하기 위해, 중요한 의식의 한 부분으로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한 대 치는 계기가 되거나 흠씬 두들겨 팬 뒤 모든 핑계를 술로 돌리는 경우도 있다. 여러 갈래로 나뉜 의견을 하나로 정리하고, 결정을 내리는 수단으로 술을 활용한 곳도 있다. 술을 먹고 얌전히 잠이 드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쟁에 나갈 용기를 얻기도 하고, 그저 낄낄대고 웃음이 많아지는 정도에 그칠 수도 있지만 공격성이 급증하고, 감정이 폭발하고, 성욕을 분출하거나 반대로 한껏 수줍어하는 사람들도 있다. 종교와 결합하면 술 기운을 빌어 죽은 영혼과 대화를 나누려는 의식이 치러지기도 했었다. 저자는 이렇듯 오랜 인류의 역사에서 나타난 각양각색의 술 마시는 문화와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 책에서 간략하게 정리했다. 사람들은 왜 술을 마시는가? 마시는 양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주로 술을 마시는 부류는? 저자는 원시 부족부터 금주법이 시행되던 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와 절대 분리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흥미진진하게 전한다. 술의 역사를 다룬 책이나 자료는 많지만 술 마시는 문화와 술 취한 사람들의 다양한 양상을 고찰한 자료는 의외로 별로 없다는 점에서 더욱 흥미롭고 의미 있는 책이라 할 수 있다.

미다스 왕을 비롯해 셀 수 없이 많은 고대 정치 지도자들이 죽고 나면 술은 물론 술잔 등 술과 관련된 용품이 무덤에 함께 묻힌 이야기, 아즈텍 사람들이 마시던 알코올 함량이 아주 높은 핫초코, 피라미드를 지을 때 동원된 노예들에게 노동에 필요한 열량과 수분을 동시에 공급할 목적으로 맥주를 공급했다는 사실, 신석기 시대 주술사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죽은 조상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이야기부터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중대한 정치적 결정을 내려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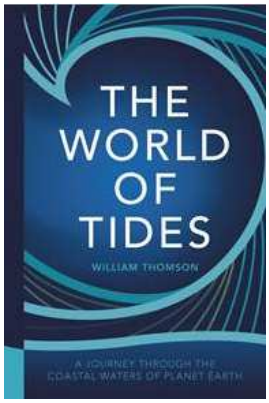
할 때 토론을 술과 함께 한 번, 맨 정신에서 또 한 번 실시한 후 동일한 결론이 내려졌을 때만 그 결론을 승인했다는 이야기까지 엉뚱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시대마다, 지역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술을, 무슨 이유로 마셨고 술을 어떤 수단으로 활용했는지 혹은 특정 사회에서 술은 어떤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팽배했는지 구석구석 들여다보면서 도수만 다를 뿐 결국 똑같이 에탄올이 들어간 음료가 얼마나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냈는지 보여준다.
위트 있고 간결한 글로 호기심을 충분히 자아낼 만한 이야기를 잘 정리한 유익하고 재미 있는 역사서다.

<목차>

머리말
1. 진화
2. 선사시대의 음주
3. 수메르인들의 술집
4. 고대 이집트
5. 그리스 심포지엄
6. 고대 중국의 음주
7. 성경
8. 로마의 콘비비움
9. 암흑 시대
10. 중동 지역의 음주
(이하 생략, 총 18장과 맺음말로 구성)

<저자 소개>

마크 포시스(Mark Forsyth)는 저술가이자 강연가이다. 저서 『The Etymologicon』는 「선데이 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최근작인 『A Christmas Cornucopia』는 12,000부 이상 판매됐다. TED 강연 'What's a snollygoster?'는 조회수 50만 회 이상을 기록했다. 콜린스 영어사전(Collins English Dictionary) 개정판의 서문을 썼다.



제목 : THE WORLD OF TIDES

가제 : 파도의 세상

저자 : William Thomson

출판사: Quercus

발행일: 2017년 10월 5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과학(자연)

*** 영국, 오세아니아, 프랑스, 노르웨이, 스페인,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해류와 특징, 인류의 삶에 미친 영향을 광범위 하게 정리한 책**

*** 다채로운 인포그래픽과 일러스트레이션 포함**

무더운 여름마다 사람들은 극심한 교통 정체나 고된 장시간 운전도 감수하며 바다로 향한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바다는 늘 그 찾아오는 사람들로 북적댄다. 거센 파도에 몸을 맡기고 계속해서 자신을 시험해보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조용히 해변을 거닐며 광활한 바다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보며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는 사람들도 있다. 무엇이 우리를 바다로 이끌까? 무엇이든 집어삼킬 수 있는 거대한 파도의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파도 한 가운데로 달려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연히 해양구조대로 활동하면서 파도의 움직임과 물의 흐름에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된 저자는 그 매력에 빠져 영국 전역의 해변을 여행하며 본격적으로 그 답을 찾기 시작했다. 그 결과물로 탄생한 첫 번째 저서 『The Book of Tides』에 이어 이번에는 미국과 캐나다, 포르투갈,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페인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직접 경험한 파도와 해양의 놀라운 광경과 흐름, 움직임을 이 책에 담았다. 저자가 직접 그린 인포그래픽과 일러스트레이션이 페이지마다 제시되어 파도의 흐름을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며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이를 통해 왜 특정 지역에서는 다른 곳과 다른 파도의 흐름이나 물살이 나타나는지, 해변의 구조에 따라 파도가 어떤 형태로 형성되는지, 그러한 특징에 따라 사람들은 바다를 역사적으로 어떻게 즐기고 또 조심해 왔는지 과학적인 분석과 문화적 역사를 모두 알기 쉽게 정리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어부들이 바다가 아주 위험한 곳이고 폭풍우가 얼마나 끔찍한지 잘 알면서도 그 위험 때문에 물가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파도타기를 취미로 삼거나 전 세계를 돌며 가장 위험한 파도를 찾아다니는 모험가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파도에는 일정한 흐름이라는 것이 없고, 날마다 시간대마다 급변한다. 파도에 들어선 순간 우리는 매 순간 결정을 해야 하고 맞서기로 마음을 먹는다 한들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바다와 인간의 이 끝 없는 갈등과 조화는 비단 어부나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연이 인류에게 내던진 위험한 순간을 어떻게 넘길 것인지,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 또 자연의 이 도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디까지를

모험으로 여길 것인지 결정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는 훌륭한 교과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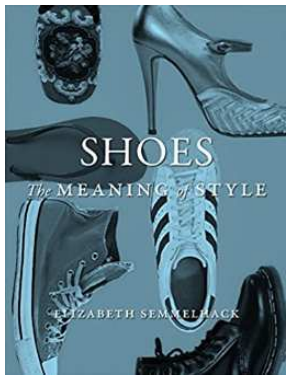
저자가 가족들과 함께 지난 2년 동안 아프리카부터 북극해까지 전 세계를 돌며 스쿠버다이빙, 모터사이클, 서핑, 보트 타기, 해변 트래킹 등 다양한 형태로 보고, 듣고, 경험한 다양한 바다의 풍경과 흐름, 파도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여행기이자 전 세계 바다와 파도에 관한 과학적 사실을 그림으로 설명한 정보서다.

<목차>

머리말
밀물과 썰물
물줄기
해류
급류
와류
쓰나미
강력한 해류
파도
격조

<저자 소개>

윌리엄 톰슨(William Thomson)은 해양학자이자 저술가, 아티스트로 활동하며 웹 사이트 tidalcompass.com를 운영하고 있다. 뉴캐슬 대학교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해양 구조대로 활동하면서 처음으로 조수 흐름에 관한 공부를 시작했다. 첫 번째 저서 『The Book of Tides』는 1만권가량 판매됐다.



제목 : SHOES: THE MEANING OF STYLE
가제 : 신발: 스타일의 의미
저자 : Elizabeth Semmelhack
출판사: Reaktion Books
발행일: 2017년 10월 15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역사(문화)

*** "신발을 참신하고 매력적으로 조명하여 사회적 의미와 변천사를 살펴본다.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 패션 디자이너 마놀로 블라닉*(Manolo Blahnik)***

*** "신발에 관한 저자의 놀라운 지식을 활용하여 끊임없이 변하는 디자인을 문화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친근하게 분석한 신작" – 런던 예술대학교 패션·박물관학 교수 주디스 클락**

많은 사람들이 아침마다 뭘 신고 나갈지 고민하고, 아예 신발에 맞게 옷을 정하는 사람들도 많다. 어떤 옷을 입건 늘 정해진 신발 몇 가지를 신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들도 나름대로 디자인과 신발의 종류를 정하는 원칙이 뚜렷하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발' 카테고리를 잠깐 들여다보면 1만 가지가 넘는 신발들이 판매되고 성별과 신발의 유형은 물론 색깔 별로도 분류된다. 사무실, 결혼식, 장례식, 소풍, 등산 등 때와 장소에 따라 신발을 잘 맞춰 신지 않으면 꽤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하고 '센스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쉽다. 패션 블로거나 소위 '패셔니스타'들 중에는 아예 신발만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리뷰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들에게는 수많은 팔로워들이 따른다. 신발은 발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품에서 벗어나 문화와 개개인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았다. 어떻게 신발 한 켤레가 개개인의 일상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이토록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을까? 발을 다치지 않게 보호하던 도구에서 사회적 정체성의 주된 부분을 차지하는 중심 요소가 된 배경은 무엇일까? 어떻게 특정 종류, 특정 브랜드의 신발에 독특한 생활 방식과 사회적 가치가 담기게 되었을까? 신발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치솟고 '신발 수집가' 혹은 마니아를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신발에 심취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캐나다에서 신발 박물관의 선임 큐레이터로 활동 중인 저자는 이 흥미로운 의문의 답을 이 책에서 면밀히 살펴본다. 신발이 만들어지는 기술이나 스타일의 변천사에 주목하는 대신 인류의 문화와 역사, 경제, 사회적 정체성의 관점에서 신발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주었는지 추적하고 특히 신발에 부여된 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책은 샌들과 부츠, 운동화, 하이힐까지 총 네 가지 종류의 신발에서 이 같은 내용을 파헤친다. 각 종류의 기원, 기술 발달이 생산 방식과 착용 방식, 디자인에 일으킨 변화, 시대와 지역별로 똑같은 종류의 신발에 부여된 너무나 다른 의미들, 신발에 얽힌 스캔들, 그리고 신발을 만드는 사람, 사는 사람, 관찰하는 사람들의 집착, 선호도, 성공, 실패에 관한 이야기와 이들의 경험이 만들어낸 신발이라는 패션과 문화의 변화를 상세히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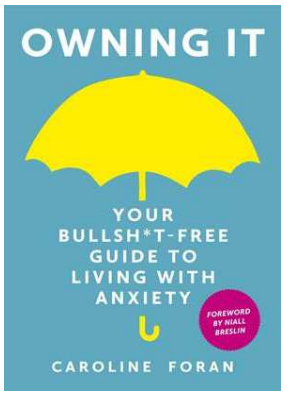
역사적으로 신발은 성별을 뚜렷하게 구분하고, 왕을 비롯한 윗사람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하고, 개개인의 지위를 드러내고, 정치적, 사회적 의사를 표출하는 수단을 활용되어 왔다. 비언어적으로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드러내는 아주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수단이었던 신발은 산업화된 사회에서 디자인, 가격 면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그러한 기능이 변형되고 확대되어 개개인의 개성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저자는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귀중한 역사적 자료와 삽화, 일러스트레이션과 함께 네 가지 유형의 신발이 만들어낸 문화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신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물론 사회와 정체성의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흥미롭게 읽을 만한 책이다.

<목차>

머리말
1. 샌들: 엉뚱함
2. 부츠: 포괄성
3. 하이힐: 불안함
4. 스니커즈: 특별함
결론: 집착

<저자 소개>

엘리자베스 세멜헥(Elizabeth Semmelhack)은 캐나다 토론토의 '바타 신발 박물관(Bata Shoe Museum)'에서 선임 큐레이터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Out of the Box: The Rise of Sneaker Culture』(2015) 와 『Heights of Fashion: A History of the Elevated Shoe』(2008) 등이 있다.



제목 : OWNING IT
가제 : 가져라
(부제 : 불안해도 삶을 개판으로 만들지 않는 법)
저자 : Caroline Foran
출판사: Hachette Books Ireland
발행일: 2017년 5월 11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건강

*** 소셜 미디어에서는 모두가 행복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대부분이 불안감을 감추고 사는 사회, 불안감의 원천과 극복 방안을 알기 쉽게 밝힌 책**
*** 다양한 치료법의 종류와 효과,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분석한 건강서**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득도한 사람들, 정신적으로 특별한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런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현대인은 누구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떤 일을 하건 어느 지역에 살건 스트레스와 불안을 느끼며 살아간다. 과거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거나 극히 드물었던 중증 질환이 주된 사망 원인이 되고 자살률이 전례 없이 급증한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도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건강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심리학을 전공한 적도 없지만 불안감에 시달리고 이겨내려 안간힘을 써본 경험만은 누구보다 많다고 이야기하는 저자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의 원칙을 이 풀기 힘든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다. 불안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떨쳐내고 두 번 다시 느끼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어쩐지 속 시원하고 납득이 가는 전제를 토대로, 저자는 불안을 없앨 방법을 찾느라 돈과 시간, 에너지를 허비하는 대신 잘 관리하는 법,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도록 다스리는 방법을 익히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고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어려운 의학 용어와 난해한 분석은 배제하고 현실적인 조언과 공감을 얻고 싶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제시한다.

누구나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불안을 느끼지만 그 강도나 불안을 느끼는 상황, 대상에는 차이가 있다. 때로는 불안한 마음이 온 신경을 지배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도 있지만 내심 불안하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다른 일을 거뜬히 해낼 수 있을 때도 있다. 불안할 때 나타내는 반응이나 '증상'도 제각기 다르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이 불안감이 어느 시점에 폭발할 것인지 혹은 잠잠해질 것인지 예측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완전히 불안을 털어낼 수는 없을지언정, 다양한 도구와 연습을 통해 극단적으로 치솟는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이에 저자는 책을 불안을 상세히 분석해보는 첫 번째 부분과 실질적인 대처 방법을 소개한 두 번째 부분으로 나누어서 불안감의 극복 원리와 방법을 제시한다.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왜 불안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인체의 관점에서 이 감정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큰 문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지 설명한다.

처음 불안의 감정이 형성되는 과정과 그것이 증폭되는 경로를 다각도로 분석하면서 무작정 불안을 억누르거나 다른 곳에 관심을 쏟는 것으로 정신을 분산시키는 방법으로는 절대 해소할 수 없는 이유를 알려준다. 책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불안감이 고개를 들 때 차분하게 가라앉힐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대인관계에 관한 정리, 호흡법, 숙면을 통한 해결 방법을 비롯해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인지행동 치료와 그 원리를 직접 활용하는 방법, 약물 치료나 대안 치료, 운동과 식습관을 통한 해결 가능성과 장단점을 폭넓게 알아본다.

심도 있고 다양한 자료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면서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이 녹아 있어 많은 부분에서 공감할 수 있는 친근하면서도 유익한 건강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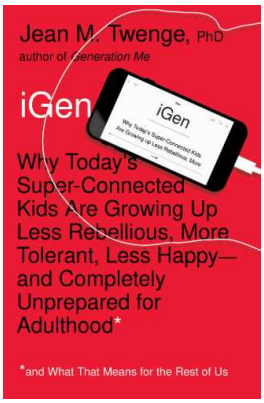
<목차>

서문
머리말: 이 책이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것
1부. 불안에 관한 분석
1. 불안감이란 무엇인가?
2.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알아보자
3. 그나마 덜 짜증나는 특징
4. 부정적으로 치우친 시각
5. 자신의 취약성을 소유하라 (이하 생략, 총 9장까지 구성)
2부. 불안에 대한 대처
10. 수용이 핵심이다
11. 성격과 불안을 구분해야 한다
12. 사회적인 비교가 나쁜 영향을 주는 이유
13. 행복에 도움 되는 관계, 행복을 해치는 관계 (이하 생략, 총 20장까지 구성)
결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저자 소개>

캐롤라인 포랜(Caroline Foran)은 편집자로 일하다가 현재는 더블린에서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더블린 시티 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과 영화, TV를 전공했다. 「선데이 비즈니스 포스트(Sunday Business Post)」, 「아이리쉬 타임스(Irish Times)」 등에 글을 기고해 왔으며 전자책 출판사 'GAFFInteriors.ie'를 운영하고 있다.

제목: iGen
가제: i 세대
저자: Jean Twenge
출판사: Atria Books
발행일: 2017년 8월 22일
분량: 352 페이지
장르: 사회과학



* **"귀중한 통찰이 가득 담긴 이 책은 대세를 전환할 자료이고 현 세대 부모, 교육자, 리더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인상적인 결과, 강력한 요점, 중요한 해결책이 제시된다." – 교육심리학자, 『*UnSelfie*』의 저자 미쉘 보바**
* **"철저한 통계 분석에 통찰력 있는 인터뷰, 훌륭한 글 솜씨가 더해져 믿음직하고 대단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하는 책" – 보스턴 컬리지 심리학과 교수, 『*Free to Learn*』의 저자 피터 그레이**

친구와 쇼핑몰에 놀러 갈 때 부모님이 동행하는 아이들, 또래들과의 의사소통은 말로 하는 대화보다 이미지 필터가 포함된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대, 'Z세대'로도 불리는 'i세대'가 나타났다. 1995년 이후에 태어난 이 세대는 인터넷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을 전혀 모르고, 인터넷을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사용하는 것을 처음부터 당연하게 여기며 자랐다. 이전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환경에서 자란 i세대는 지금까지 전혀 볼 수 없었던, 전 세대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특징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무엇이 이들을 전에 없이 독특한 세대로 만들었을까?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어떤 영향을 발휘하게 될까? 베이비부머 세대와 X세대부터 시작하여 20년 이상 세대간의 차이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저자는 밀레니엄 세대와 큰 차이를 보이는 이 새로운 i세대의 특징을 이 책에서 면밀히 분석한다. 미국에서 1960년대 이후 진행된 총 4건의 대규모 조사 결과와 저자가 직접 연구한 사실들, 광범위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추려낸 총 10가지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각 장마다 상세히 소개된다.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요즘 '젊은이'들을 대하거나 예측하는 어른들은 아이들의 예상치 못한 행동과 반응, 생각을 접하고 크게 당혹스러워한다. i세대는 과거의 젊은이들과 달리 술이나 섹스 등 어른들의 전유물로 여겨진 영역에 그리 큰 호기심을 품지 않는다. 빨리 어른이 되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던 예전 젊은 세대와 달리 최대한 어른이 되는 시점을 늦추려 한다. 부모님 곁을 떠나 독립하는 것은 곧 경제적인 독립을 의미하고, 이것이 i세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가진 자'보다 '못 가진 자'가 감당해야 하는 불평등을 너무나 잘 알고, 그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참지 못하는 성향도 그 어떤 세대보다 강하다. 이것은 성별이나 인종에 따른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열린 마음과 사고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요소인 동시에 자신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우울증,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저자는 이 독특한 세대가 청소년기를 넘어 성인기에 접어드는 현 시점에 우리가 이들을 이해

하고, 도와주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가족과 친구들이 세심하게 보살펴주어야 할 부분, 이들이 경제 인구로서 활동하게 될 산업계가 i세대를 조직의 구성원으로 또는 소비자로 대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요소들, 이 아이들이 심층적인 공부를 하게 될 대학들이 숙지해야 할 적절한 교육 방식과 지침을 폭넓게 제시하고, i세대에 속하는 당사자들 또한 자신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어른들과의 의사소통에서 맞닥뜨리는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의 생각을 또래와 주변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법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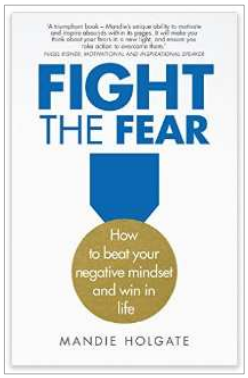
사회 전반의 변화를 대대적인 세대 변화의 측면에서 조망하고 세대갈등의 주된 요소를 날카롭게 분석한 유익한 자료가 가득하다.

<목차>

머리말. i세대란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1장. 서두르지 않는다: 성장이 느린 아이들
2장. 인터넷: 온라인, 그리고 다른 미디어
3장. 직접 만남은 이제 그만: 우린 함께지만 가상 공간에서만 그래
4장. 불안: 새로운 정신건강의 위기
5장. 반종교: 종교(그리고 영성)를 잃다
6장. 보호받지만 본능적인 건 아니다: 안전성은 높아지고 공동체의식은 줄고
7장. 소득에 대한 불안감: 쇼핑이 아닌, 벌기 위해 일한다
8장. 불분명한 영역: 섹스, 결혼, 자녀
9장. 포괄적: LGBT, 성, 새로운 시대의 종교 문제
10장. 독립성: 정치
결론. i세대를 이해하고, 구하라

<저자 소개>

진 트웬지(Jean Twenge)는 샌다에이고 주립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현재까지 100편 이상의 학술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 결과가 「타임」지, 「뉴스위크」, 「뉴욕타임스」, 「USA 투데이」 등에 소개되기도 했으며 투데이쇼, 굿모닝 아메리카 등 TV 프로그램에서도 다루어졌다. 저서로는 발표 후 큰 반향을 일으킨 『자기중심 세대(Generation Me)』와 『나는 왜 나를 사랑하는가(The Narcissism Epidemic)』 등이 있다.



제목 : FIGHT THE FEAR
가제 : 두려움과 맞서라
저자 : Mandie Holgate
출판사: Pearson Business
발행일: 2016년 11월 9일
분량 : 176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두려움을 이겨내는 현실적인 방법과 조언을 제공하고 미래에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한다." – 영국 첼름스퍼드 시청 경제·성장과, 마이크 스미스**

*** "대부분의 사람들을 주춤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 두려움을 타개하는 법을 다른 멋진 책. 두려움이 일으킨 허상을 거둘 수 있게 되면 꿈과 야망을 훨씬 더 수월하게 성취할 수 있다." – 라이프 코치, 강연자, 베스트셀러 저자 피트 코헨**

"뭐라고 할지 겁나서 말을 못하겠네." "지금 와서 그만 둘 수도 없어. 그랬다가 무슨 일을 겪게 될지 모르니까 두려워." "도저히 못 하겠어!" 이런 말들은 일터에서 동료들끼리 상당히 자주 주고받는 대화에 상당히 자주 등장한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꽥 비명을 지르고, 전력을 다해 도망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속으로 벌벌 떠는 심정, 등줄기에 땀이 흐르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상태, 초조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도 모두 두려움 때문에 시작된다. 그러나 실패하거나 일이 그르칠 까봐 조바심을 내는 것,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중요한 자료를 발표하는 것, 혹은 누군가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거나 요청하는 것, 내키지 않는 일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부터 변화에 대한 두려움은 개개인이 가진 역량을 십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성공을 가로막는다. 그러므로 성공을 위해서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한 채 내면 깊은 곳에 숨어 있던 두려움과 그 원인을 찾아내서 없애야 한다. 비즈니스 코치로 활약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문장과 설명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찾아내고 극복하는 전략을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대부분이 두려움을 느끼는 대표적인 상황과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자신도 모르게 솟아나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기술과 도구를 제시하는 한편,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체득할 수 있도록 실전 연습문제도 함께 제공한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하기 싫어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든 해내도록 독려해주기도 하고 꾸중하기도 한다. 그 응원과 잔소리에 힘입어 삶에 필요한 기술들을 배워나갈 수 있지만, 어른이 되면 하기 싫은 일, 내키지 않는 일을 미루고 모른 척 할 수 있어 더욱 소극적인 사람으로 굳어버리기 쉽다. 두려움이 쉽게 한 사람을 잠식하고 만사에 겁을 내게 만들기 쉬운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다. 그러나 근거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발전과 성장을 저해하는 쓸데없는 두려움은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훨씬 더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두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과거에 겪은 실패나 주변 사람들의 사례를 들며 그 감정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스스로도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믿지만, 대부분의 두려움은 현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이유 없는 고집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저자는 각 장을 총 네 부분으로 나누어 첫 부분에서는 그러한 다양한 두려움의 특징과 원인을 분석하고 두 번째 부분에서 그러한 두려움이 슬며시 고개를 드는 사례와 이겨내는 방법에 관한 연습 문제를 제시한다. 이어 세 번째 부분에서는 연습한 것을 실제 업무 상황에 적용하여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을 설명하고, 마지막 네 번째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스스로 도전한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한다.

자신 있게 일을 추진하고 좋은 기회는 단단히 붙들 줄 아는 사람, 본능적으로 생겨나는 두려움을 충분히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목차>

머리말
1장. '내가 어떤 사람인지 누가 알아채면 어쩌지'
2장. 목표 세우기를 두려워하는 사람
3장. 자신의 성공을 믿지 못하는 사람
4장. 오만하게 보일까 봐 두려운 사람
5장. 도움을 청할 줄 모르는 사람
6장. 도저히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7장. 관중 앞에서 연설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
8장. 전화 통화를 겁내는 사람
9장. 바보처럼 보일 까봐 두려운 사람
10장. 남들의 생각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
11장. 원하는 것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
12장. 쉬는 법을 모르는 사람

<저자 소개>

맨디 홀게이트(Mandie Holgate)는 비즈니스 코치이자 강연자, 저술가, 방송인이자 '비즈니스 우먼스 네트워크(The Business Woman's Network)'의 창립자이다. 전문가,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업무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과 기술을 지도해 왔다. 2015년 「우먼스 온 매거진(Woman's Own Magazine)」에서 "비즈니스 분야 최고의 강연가"로 언급되며 '올해 영감을 준 인물' 중 하나로 선정됐다. .